

## 북한산부대와 '5Why'

지난달 28일 “전승 보장! 여기서, 우리가!”라는 구호 아래 육군56보병사단을 대상으로 한 전투지휘훈련이 사후검토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훈련은 56사단 전투참모단의 상황 판단·결심·대응과정과 제 기능을 통합한 전투지휘 능력을 확인할 중요한 기회였다.

사후검토분석관으로서 1년 반 남짓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사단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토 분석은 처음이었다. 긴장감과 동시에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56사단은 작전지역 내 수많은 국가중요시설과 핵심노드를 보유 중으로, 전구작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더 전문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해야 했기에 어렵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기회라고 여겼다. 높은 수준의 분석을 위해 분석관들이 많이 활용하는 '5Why', 즉 현상을 깊이 파고드는 5번의 질문을 활용한 게 큰 도움이 됐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분석관들은 5번의 이어지는 질문을 던지



이승운 소령  
육군전투지휘훈련단

면서 현상이 생기게 된 구체적 원인을 깨닫는다. 분석해야 할 요소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훈련 중 발생한 현상에 기초해 인과관계에 의해 연계성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Why로는 국면 또는 의제를, 2Why로는 전투 수행기능별 원인을, 3Why로는 기능실 임무 수행요소별 원인을, 4Why로는 임무 수행체계상의 원인을, 마지막 5Why로는 임무 수행에 문제가 생긴 근원적 원인을 찾게 해 준다.

예를 들면 1Why에서 “수도 서울 안정 및 기능 발휘는 유지되고 있는가”란 의문을 던진다. 2Why에선 “도시지역작전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3Why에서

는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작전 중 서울의 수많은 지하시설·건물작전 때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한다. 4Why에선 좀 더 파고들어 지하시설·건물작전 전담부대를 활용한 작전 수행체계를 확인하고, 최종 5Why에서는 사단 기동대대 및 여단 기동중대에 편성된 전문장비 활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 같은 5번 이상의 연계된 질문을 던지면서 수도 서울을 안정시키고자 도시지역작전 수행 중 대테러부대뿐만 아니라 사단 기동대대 및 여단 기동중대에도 지하시설·건물작전을 위한 전문장비와 물자 전력화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전투지휘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육군전투지휘훈련단 사후검토처 일원으로서 깊이 있는 질문과 현상의 원인을 계속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훈련부대의 발전을 끌어냄으로써 육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훈련소에서 느낀 감사

### 훈련병의 편지

이승규 이병  
육군훈련소 28교육연대



지난 7월 28일 한껏 가벼워진 머리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육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이제 어엿한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걱정이나 두려움보다 도전정신으로 매 순간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체력 탓에 교장으로 이동할 때부터 비지땀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매일같이 연병장을 뛰는 아침 체력단련부터 전우를 어깨에 둘러메고 이동하는 전투부상자처치, 팔꿈치와 무릎을 파랗게 물들이는 각개전투, 소리 없는 아우성 속에 숨소리마저 시끄럽게 느껴진 야간행군까지. 돌아보면 어떻게 이겨 냈는지 모를 도전들이었습니다.

어느덧 행군까지 모두 마치고 수료를 앞둔 지금, 훈련소 기간을 돌아켜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감사’입니다.

군에서 필요한 기본 교육과 각종 검사, 예방접종 등의 가벼운 일정이 진행되는 1주 차에는 강의장의 에어컨 바람에 감사했고, 너무나 맛있고 균형 잡힌 훈련소 식단과 증식에도 감동했습니다.

2주 차에는 정신전력교육을 받으며 그동안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각조차 못할 정도로 큰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지는 평화와 안보에 고개가 숙여졌으며, 오늘의 군 복무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는 일임을 깨닫고 자부심을 갖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군장을 메고 야외훈련을 한 3주 차 때는 사격훈련 등 전쟁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됐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류탄 투척과 핵·화생방·전투부상자처치 훈련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마치게 됐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함들은 오늘의 고단함을 의미 있게 바꿔줬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체력단련과 훈련, 정신전력교육, 주말 종교시간 등 훈련소에서의 모든 일정이 하나하나 쌓여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음을 절감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겁기만 하던 개인화기 소총이 어느새 가벼워졌고, 첫날 어색하기만 했던 생활관 동기들은 어느덧 사랑하는 전우가 됐습니다. 훈련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제가 어느새 훈련 자체를 극복하는 과정을 즐기는 어엿한 군인이 된 겁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의 전우와 교관·조교님들 덕에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소 생활을 무사히 마친 25~56기 전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군 생활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이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  
QR코드를 통해 ‘훈련병의 편지’ 영상 콘텐츠를 국방일보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스며듦의 끝은 금빛이었다

제주 바다는 언제나 특별하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는 우리 분임조의 여정과 닮아 있었다. 황무지와 같았던 출발선, 도움 없이 독학하며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났던 시간. 그러나 늘 혼자자가 아니었다. 반장과 중대장, 같이 고생하며 울고 웃던 동료들이 있었다. 우리 모두의 땀방울이 모여 결국 금빛 파도를 일으켰다.

3번째 국가품질경영혁신대회 도전은 쉽지 않았다. 혹평과 호평이 교차했던 워크숍에서 끝없는 고뇌와 갈등, 반복된 수정, 흔들리는 기준과 판단 속에서 좌절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손을 맞잡고 중심을 잡아 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 현지 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우리는 훈련 틈틈이 시간을 쪼개 발표 연습을 했고, 발표장에 나서기 전 손을 엮고 다짐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이었다. 발표가 끝난 순간 찾아온 안도감, 이어진 심사위원들의 평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지난 1년 농사가 끝났음을 실감했다. 아쉬움과 시원섭섭함이 뒤섞여 제주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임의택 군주무관  
육군5군수지원사령부

경쟁자이자 친구가 된 한국수력원자력 분임조장에게 전화가 왔다. “밤새워 가며 하더니 축하한다!”

협회 홈페이지 결과 발표에 박힌 두 글자, ‘금상’. 그 순간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식을 들은 열 살 큰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가 우리 아빠라 너무나 자랑스러워. 사랑해요!” 그 말은 금상보다 더 값진 상이었다.

이어 대구협회 사무국장님과 최고위원에게도 연락이 왔다. 전문컨설팅 없이 독학으로 금상까지 받은 게 처음이라며 격려하시기에 감사함을 전했다. 지난 노력이 공식 인정받는 순간이면서 우리가 함께 이룬 값진 역사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파도

소리를 음악 삼아 서로 마주앉아 직책도, 계급도 잠시 내려놓고 옹기종기 모여 모닥불을 피웠다. 서로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간의 고생을 나누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다. 남자 넷이서 나눈 그 진솔한 대화에 담긴 것은 단순한 성과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특별한 순간, 평생을 간직할 동지애였다.

우리가 군에서 추구하는 정신은 혼자 앞서가는 힘이 아니라 같이 끝까지 달려가며 넘어지고 깨져도 포기하지 않고 동료와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신뢰와 의지다. 울고 웃으며 서로에게 스며든 진한 향기, 바로 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값진 선물이다. 나의 시작은 동수였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우리는 금빛 결실을 보게 됐다. 제주 바다에서 느낀 그 벅찬 감동은 곧 육군이 추구하는 정신과 닮았다. 함께라면 끝까지,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제주의 파도처럼 밀려든 눈물과 웃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 서로에게 물들었다. 스며듦의 끝은 같이 걸어온 길 위에 번진 금빛이었다.

###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 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m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응모한 휴대전화 기반 카카오톡으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13, (일반)02-2079-3713

